“신앙·지성·정직한 인성 갖춘 인재 키우겠다”

장종섭 제21대 숭일학원 이사장 취임

118년 기독 사학…졸업생 2만7천여명
목회자 300여명 등 한국교회 큰 영향
e-러닝·고교학점제 등 시범사업 앞장

“신앙과 지성, 인화와 정직한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년 전통의 기독 명문사학 숭일학원이 새로운 이사장을 맞이했다.

장종섭(사진) 장성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6일 제21대 숭일학원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27일까지다.

학교법인 숭일학원이 운영하는 광주숭일중·고등학교(북구 일곡동)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정규남 전 광신대 총장, 이경보 광주숭일중·고 총동창회장, 한원석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법인 이사, 목회자, 학부모, 학생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숭일중고등학교(옛 숭일보통학교)는 1907년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유진벨(Eugene Bell·한국명 배유지)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로, 수피아여학교와 함께 광주 최초의 사학 명문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2만7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3·1운동 당시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해 교사·학생 28명이 옥고를 치렀고 학생 송광춘은 대구교도소에서 옥사하는 등 항일운동의 중심에 섰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폐교의 아픔도 겪었지만 1945년 광복과 함께 복교한 숭일중고등학교는 많은 학생들의 6·25전쟁 참전,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의 역사에 기여해왔다.

장종섭 신임 이사장은 “학교법인 숭일학원은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격을 갖춘 인재를 길러 인류 번영에 기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저 역시 건학이념에 따라 신앙과 지성, 인화와 정직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숭일중·고의 가장 큰 자랑은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 특히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한 것이다. 김준곤 목사, 서철원 교수, 정규남 광신대 총장, 황승룡 호남신학대 전 총장 등이 기독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며 “현역으로 활동하는 목회자만 300여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계와 법조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에도 활약 중인 동문들이 많다”며 “광주숭일중·고는 e-러닝 연구학교,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등 다양한 교육 시범사업을 통해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이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공공기관 운영’ 최우수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사진)이 2024년도 공공기관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탁월)등급’을 받았다.

16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개 국립과학관법인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광주과학관이 최고 득점인 101.48점(경영혁신 성과 가점 4.75점 포함)을 기록,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성과 중심 중장기 전략 수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경영체계 고도화 ▲정부 혁신계획의 전면 이행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대국민 소통 확대 ▲호남권 과학관과의 협력 강화 등 다방면에서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낸 점이 주목받았다.

사업성과도 눈에 띈다. 특별전 ‘2024 다이노 월드’는 매회 ‘오픈런’ 현상을 보이며 총 5만904명이 방문했고, 성인 대상 프로그램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 과학힐링캠프 ‘별난낭만 여행’ 등 차별화된 기획으로 관람층을 넓혔다. 설, 명절,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주요 계기일 무료 개관을 통해 공공성 제고에도 힘썼다.

이정구 관장은 “이번 성과는 전 직원의 헌신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과학문화 플랫폼으로서 창의인재를 키우고 성인들의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신나라지역아동센터 NIE 2차 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된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15일 광주 서구 신나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NIE(신문활용교육) 2차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차 교육 때 배웠던 기사의 특성과 기사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 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배웠다.

교육에 참여한 이로하(마재초 5)·이로희(마재초 3)·최진호(상무초 3) 학생은 신문 만들기 관련 궁금한 점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 같은 아이들의 열의는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였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마무리되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문을 공모해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전남자치경찰委, 청소년 자치경찰학교 운영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청소년의 지역사회 치안 문제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 자치경찰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16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 자치경찰학교는 청소년이 학교폭력, 사이버 도박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주제로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실천하는 자치 치안 프로젝트다. 지난 6월부터 중·고등학교 9개교가 참여해 자율적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경찰학교도 함께 운영한다.

전날 순천 세빛중학교를 시작으로 학교전담 경찰관, 학생, 교사 등이 함께 참여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주제로 현장 중심 소통의 장과 다양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양시원 기자

광주기업·의료기관,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기탁

광주 지역 기업들과 의료기관이 소방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 기탁에 동참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6일 “전날 ㈜광주신세계 등 지역 기업과 의료기관 4곳에서 재단법인 록수장학회에 장학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장학기금은 ㈜광주신세계 2천만원, 코비코㈜ 1천만원, 서광병원 1천만원, ㈜해양에너지 1천만원으로 소방공무원 자녀들의 학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록수장학회는 올해 총 50명의 소방공무원 자녀를 선발해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진석 록수장학회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소방공무원 자녀들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장학금 기탁에 함께해주신 ㈜광주신세계, 코비코㈜, 서광병원, ㈜해양에너지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같은 따뜻한 나눔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록수장학회는 지난 1976년부터 매년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천213명의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7억9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개발공사,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보상사업소 개소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16일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본격 추진을 위한 보상사업소를 사업지구 인근 나주 동수농공단지 내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전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에 123만9천722㎡(약 38만평) 규모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에너지 국가산단은 에너지 밸리 조성 확대, 신소재와 나노 융합 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 정보통신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산단 조성이 완료될 경우 에너지 산업벨트가 구축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유치, 경제 활성화 등 나주 경제를 견인하는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개발공사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보상사업소 개소와 함께 8월 중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물건 등에 대한 세부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에너지 첨단산업의 중심 메카가 될 것”이라며 “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에 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 남부경찰, ‘교통질서 확립’ 홍보활동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을로운수를 방문,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반칙운전’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교통 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끼어들기 등 교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감식을 고취하고 교통질서를 지키는 안전한 나라 구현을 위한 교통 안전의식 개선도 촉구했다.

김종득 남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운수업체 등 사업용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산학협동硏, 김경수 전남대 교수 초청 포럼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KIURI, 이사장 김보곤·원장 양승학)은 16일 오전 광주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7회 산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경수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AI 문화와 창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강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산학협동연구원 제공〉

해군 3함대, 혹서기 소화·방수 실전훈련

해군 제3함대사령부(3함대) 훈련대대는 지난 14일 부대 내 손상통제훈련장에서 함정 근무장병 20여명을 대상으로 ‘혹서기 대비 소화·방수 실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와 침수 등 해양 재난에 대비해 현장 대응 능력과 팀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훈련관찰관의 감독 하에 안전하게 이뤄졌다.

오전에는 소방복 및 양압식 공기호흡기 착용법 교육과 모의 화재 진화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대처 능력을 높였다. 오후에는 적의 공격이나 암초 충돌로 인한 선체 손상을 가정해 파공·파열 부위 긴급 처지 훈련이 진행됐으며 특히 파이프 손상 상황에서 파이프 패칭(Patching) 기법을 통한 손상통제 절차를 시연해 팀워크를 높였다.

다목적훈련지원정(MTB) 자-205정장인 신종효 준위는 “실전 훈련으로 비상상황 시 효과적인 대응 절차를 익힐 수 있었다”며 “안정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협력과 신속한 조치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훈련을 지원한 노만수 생존훈련관찰관은 “혹서기를 맞아 반복 숙달을 통해 장병들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켰다”며 “실전성 높은 훈련을 지속해 해양 재난 대응 능력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 백수파출소, 해안도로 일대 합동 순찰

영광경찰서 백수파출소는 “최근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백수읍 소재지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범죄 예방 및 기초질서 위반 등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합동 순찰에는 백수읍사무소, 백수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해 빈집털이 절도, 농·어촌 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 근절, 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 등을 동시 진행했다.

전상률 백수읍 자율방범대장은 “우리 동네에서 기초질서 위반 등 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